

**2026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 첫날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냅니다. 올해도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성모님의 전구를 청합시다.

**입당성가 : 239번 '거룩한 어머니'**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제 1 독서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6,22-27**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4,4-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6-21**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영성체 성가 : 165번 ‘주의 잔치’**

#### **영성체 후 묵상**

새해 첫날 우리도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향**

**파견성가 : 44번 ‘평화를 주옵소서’**

## 2026년 1월 4일 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인류의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날입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 맞갖은 예물을 드립니다.

**입당성가 : 487번 '동방의 세박사'**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뵈옵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60,1-6**

**화답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3,2.3ㄴ.5-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2,1-12**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105번 ‘사랑의 아기 예수’**

**영성체 성가 : 188번 ‘천사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러,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만민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0번 ‘동방의 별’**

## 2026년 1월 11일 주일 주님 세례 축일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성령을 내리시고,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만민의 주님께서 전해 주신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 입당성가 : 1번 '나는 믿나이다'

#### 본기도

+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42,1-4.6-7

####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제 2 독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10,34-38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3,13-17**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 성가 : 170번 ‘자애로운 예수’**

#### **영성체 후 묵상**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구원의 역사에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고 비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러한 겸허함과 비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481번 ‘요르단 강에서’**

## 2026년 1월 18일 주일 연중 제2주일(일치 주간)

###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2주일인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39번 ‘하나되게 하소서’**

###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49,3.5-6**

###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시작입니다.1,1-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9-34**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514번 ‘주여 대령했나이다’**

**영성체 성가 : 155번 ‘우리 주 예수’**

이 추운 계절에 자칫하면 우리는 자기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외롭고 가난한 이가 추위에 떨며 그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굳어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랑의 온기로 녹이고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고 싸매어 주는 삶이야말로, 어린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에 초대받은 우리 신앙인에게 합당한 몫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6번 ‘사랑의 송가’**

**2026년 1월 25일 - 연중 제3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입당 전 안내**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고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이 겨울에 많은 사람이 가난과 추위와 고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도래는 구원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업에 작은 도구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며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8,23ㄷ—9,3**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입니다.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10-13.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4,12-23

**강 론** : 『가톨릭 안동』 ‘복음 말씀’ 참조

**예물준비성가** : 249번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영성체 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어둠의 양면을 체험합니다. 사회의 비리와 범죄, 주변 사람들의 잘못과 약점을 보면서 그 어둠에 실망하고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보며 세상에 빛이 있음을 다시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욕심을 겸허히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서 빨리 구원의 빛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한 삶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73번 ‘세상의 빛이시며’